

“만성 적자노선 정리” 대한항공, 여수 철수

스마트폰으로 車 비추면 작동법 알려준다

“진에어 부정기 운항으로 지역민들 불편은 없을 것”



대한항공이 만성적인 적자를 겪던 여수 노선을 정리하며 여수공항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3월부터 운휴 중인 여수 노선을 아예 정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에는 아예 여수공항에서도 철수할 계획으로, 대한항공이 이용하던 여수공항의 카운터와 사무실은 타 항공사가 사용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적자가 이어지던 여수 노선의 철수 수순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72년 김포-여수 노선에 취항한 이후 김포-여수, 여수-제주 노선을 운항해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들어 여수 노선 탑승률이 20%대까지 떨어지자, 지난 3월부터 아예 운휴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의 여수 노선은 만성 적자

에 시달리며 현재까지 적자가 수십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계열사 진에어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김포-여수와 여수-제주 노선을 부정기 운항에 나서고, 이후 정기편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해당 노선 탑승객들의 편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여수 노선에 취항하며 있어(대한항공의 노선 철수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의 국제선의 경우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기아차-구글 클라우드
 AI 기반 ‘오너스 매뉴얼 앱’ 개발
 내부 명칭·작동법 동영상 설명

기아자동차가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부 기능의 작동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운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 취급 설명서인 ‘기아 오너스 매뉴얼 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아 오너스 매뉴얼 앱’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차량 내부를 비추면 해당 기능의 명칭과 핵심 작동법을 동영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는 고객 편의 어플리케이션이다. 운전자는 책자 형태의 매뉴얼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간단한 조작만으로 편리하고 쉽게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



기아 오너스 매뉴얼 앱-스위치 심볼 인식

점이 있다.

기아차는 2017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증강현실(AR)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증강현실 기술의 특성

상 신차 출시 때마다 스위치 레이아웃과 형상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어려운데다가 글로벌 시장 확대 전개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아차는 구글 클라우드, 메가존 등과 협력했다.

3사는 스위치 위에 인쇄돼 있는 심볼 자체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심볼을 모든 차종에 표준화 형태로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구글 클라우드가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 기술인 ‘AI 플랫폼’ 기반의 이미지 학습 모델을 적용, 스위치 내 심볼을 어떠한 각도에서 촬영하더라도 정확한 판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아차는 이번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업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혁신적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지속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양성문 기자 ysw@

SK에너지, 정기보수 효율성 획기적 개선

JI 등 울산지역 협력업체들과 개발

SK에너지가 석유화학 공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정기보수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SK에너지는 18일 원유 정제과정의 핵심 장비인 열교환기의 정기보수 세척 작업에, 사람을 대신해 장비가 할 수 있는 세척시스템을 JI, BCTC 등 울산지역 내 협력업체들과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정기보수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열교환기는 원유 온도를 높이고 석유 제품 온도는 낮춰 저장을 쉽게 해주는 정

유공장의 필수 설비 중 하나다. 그간 정기보수 때마다 분리·이송해 작업자들이 고압 호스로 수동 세척 작업을 해왔다.

SK에너지는 새로운 세척 시스템으로 열교환기 1기당 평균 작업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하루 900톤 이상 사용되던 세척 용수도 시스템 내 재활용 설비를 통해 400톤 이상 재활용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1400여명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아울러 SK에너지는 울산CLX 내 약 6000기의 열교환기 중 새로운 세척 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약 2500기, 40%의 열교환기에 자동 세척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두산밥캣, 북미 콤팩트 트랙터 시장 조기안착 성공

올해 5월까지 누적 1400대 판매

두산밥캣이 북미 콤팩트 트랙터 시장에서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며 조기 안착에 성공했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선보인 콤팩트 트랙터가 올해 북미시장에서 5월까지 누적 1400대를 판매하며 순항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를 극

복한 성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판매 목표 3000대를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북미 콤팩트 트랙터 시장은 연간 약 17만대 규모에 달한다. 두산밥캣은 2025년까지 이 시장에서 점유율 10%, 매출 3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산밥캣의 콤팩트 트랙터가 단기간

에 북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소형장비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현지 딜러들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두산밥캣은 현재 북미 소형 건설기계 시장에서 600여곳의 탄탄한 영업망과 오랜 영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10여년 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양성문 기자

포스코·이브자리 등 19개社 사내벤처 육성

포스코 제외 18곳이 중소기업

포스코, 이브자리 등이 사내벤처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를 통해 민간 주도의 혁신 창업에 앞장설 ‘2020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19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스코, 이브자리 외에도 나이스디앤알, 디퍼플, 위즈코어, 케이씨넷, 메이데이파트너스, 신신사, 투스라이프,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에이치이공일, 크레마, 유경시스템, 이너스커뮤니티, 우원eng, 지플러스생명과학, 유원



지리정보시스템, 드림에이스, 글로벌홀딩스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내벤처 운영사는 총 89개사로 늘어났다.

2018년부터 시작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운영기업이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선발해 육성하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총 30개 기업

이 신청했다. 투자자·선배 운영기업·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내벤처 지원계획과 지원역량, 보육 인프라 등을 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받은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선정결과 포스코를 제외한 18개사가 모두 중소기업이었다.

새로 뽑힌 포스코는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고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0월 사내벤처 프로그램 ‘포벤처스’를 공식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운영기업 선정에 계기로 중기부와 함께 사내벤처를 추가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한샘, 中企 협업 ‘반려동물 가구’ 출시

생활가구 브랜드 세레스함과 개발 마레 라운드 테이블·스툴 선보여



한샘은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 ‘한샘몰’에 국내 생활가구 브랜드 세레스함과 공동 개발한 마레 라운드 테이블과 마레 스톨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보인 공동 개발 브랜드는 한샘과 한샘몰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 출시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상품 기획은 한샘과 입점 업체가 함께하고 생산은 입점 업체가, 마케팅은 한샘이 맡았다. 신제품 출시 이후 이미지 촬영, 상품설명 페이지 구성, 광고 배너 노출 등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샘이 일부 부담했다.

이번에 출시한 마레 라운드 테이블과 마레 스톨은 반려동물을 위한 가구

의 수요와 고객 니즈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해 출시했다. 마레 라운드 테이블과 스톨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쉬고, 일하고, 놀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생활 패턴을 연구해 반영했다.

색상은 화이트, 라이트 그레이, 딥 그레이(사진) 세 종류가 있으며, 가구 장인이 직접 손으로 페인팅해 내추럴한 감성까지 담았다.

/김승호 기자

‘개국 5주년’ 공영쇼핑, ‘트로사 화장대’ 출시

특별 기획상품 6탄, 두닷과 협업

공영쇼핑은 오는 19일 개국 5주년 특별 기획상품 6탄으로 가구 브랜드 두닷의 ‘트로사 화장대’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두닷’은 디자이너들이 모여 설립한 가구 브랜드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조립식 가구를 선보여 ‘한국의 이케아’로 불리기도 했다. 좋은 디자인, 단단한 품질,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한 디

자인 철학을 내세워 젊은층에게 특히 사랑받고 있다.

두닷의 트로사 화장대는 공영쇼핑 개국 5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상품으로 두닷과의 2년간 협업 끝에 탄생했다. 공영쇼핑에선 처음으로 선보이는 디자이너 가구 상품이다.

다양한 수납 공간으로 실용성을 갖춘 것은 물론, 두닷 특유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했다. 원목 다리와 천연 소재 가죽 손잡이로 디테일을 더해 완성도



두닷 ‘트로사 화장대’

를 높였다. 거울이 포함된 구성으로 가격은 39만9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